

경인일보(96년~현재)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수원상의에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어머니의 혼’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여성 독립운동가, 존엄 지킨 주체로 존중을”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초청 강연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초청으로 강단에 섰다.

21일 김 회장은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 설란영 여사(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부인) 등 60여명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혼(魂)’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여성 독립혁명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조선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여성독립운동가인 김향화 선생과 미주독립활동가인 차인재 선생, 임정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독립혁명가 김의한의 처 정정화 선생의 혁명정신과 생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독립혁명가에게 행해졌던 일제의 잔혹한 고문의 실상과 나라를 잃음으로 일제에 끌려가 모진 학대를 당한 위안부 어머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인권 침해에 맞서 존엄을 지켜온 주체로 깊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를 직시하고 우리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